

직장불자회원 부인들, 폭넓은 사회봉사

내조가 있어 활기찬 신행

서울 지하철 1호선 석계역과 성북역. 매일 한 두 차례, 이곳 플랫폼에서는 10여 명의 '아줌마 부대'를 만날 수 있다. '승하차 질서를 지킵시다', '휴대폰 사용을 자제합시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합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여성들. 철도청 성북승무소 범우회원 부인들로 구성된 승만부인회가 벌이는 지하철 안전이용 캠페인 현장이다. 사람들로 붐비는 역사, 그곳을 종종무진 누비는 이들의 대사회 활동이 눈길을 잡아끈다.



그림 · 김영민

최근 들어 직장불자회에 '보살바람'이 불고 있다. 직장불자회원들의 부인들이 그 바람의 진원지다. '불심 내조'는 기본. 환경보호운동, 소년·소녀가장돕기, 불우이웃시설 방문, 가족법회 주관, 자체 경전연구 스터디 구성, 어린이 법회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활동 분야 폭도 넓다.

부인들이 결성하는 단체도 꾸준히 늘고 있다. 창립 15년차에 들어간 한국전력 월성원자력 반야회 내 마야부인회, 2000년도에 결성된 성북승무소 범우회 내 승만부인회, 울진원자력 문수회 내 승만회 등 출점이 10여 곳이 넘는다. 또 교정인불자회 대전교도소 불심회, 언론사불자회 등이 부인회 출범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부인회 탄생이 늘고 있는 이유는 직

마야부인회 등 단체수 점증...10여곳 넘어 거사 중심 신행패턴 부부·가족중심으로

장불자회 활성화에 있다. 그간 직장 업무에 바쁜 직장불자회가 핵심 운영 동력을 부인회에서 찾으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부인들이 정기법회나 성지순례에서 직장불자회원들보다 높은 참석률을 보이고, 회원들간 유기적 관계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부인회들은 단순히 '내조하는 신행모임'에서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에까지 신행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려는 의지도 한 몫을 했다.

성북승무소 승만부인회(회장 남두예)의 활동에서 이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승만부인회는 결성 당시 10 가지 사원을 담은 '승만청규'를 자체적으로 제정, 매년 분기별 환경법회 봉행, 관내 6명의 소년소녀가장에 매월 10만원씩의 후원금 전달 등 왕성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거사 불자 중심의 직장불자회 신행패턴도 바꾸고 있다. 변화의 움직임은 신행단위를

부부 또는 가족으로 확대시키고, 신행공간을 가정공동체로 묶어 내는 등 직장불자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월성원자력 마야부인회(회장 최희재)는 기존 반야회 정기법회 이외, 월요가족법회를 지난해 11월 직원 사택 단지 내 개원한 자체법당 '반야선원'에서 주관한다. 35명의 회원들이 순번을 돌아가며 손수 집전하는 것은 물론, 회원 가족들과 경전공부 스터디도 꾸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한다.

월성원자력 반야회 김근식 총무는 "마야부인회는 가족법회뿐만 아니라 갑포 관공사 어린이 법회 지원 등에 여성불자의 섬세함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한국원자력연구소 성불회

대전 대덕연구단지에는 많은 연구소가 있습니다. 늦은 밤, 꺼지는 않는 연구동의 불빛들과 치열한 연구열 등은 한국 과학기술의 꽃으로 피워냅니다. 그 열기의 한복판, 우리 원자력연구소 성불회는 원자력 산업을 이끌며 오늘도 불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우리 성불회는 지난 87년 2월 30여 명의 회원이 첫 뜻을 올렸습니니다. 이후 12월 연구단지 내 8개 연구소 불자회가 참여하는 대덕연구단지 성불회를 창립시키는데 중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현재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각 연구소의 임원들이 주축으로 된 '대덕연구단지 성불회(회장 김현석, 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11월부터는 태전사 도일 스님을 모시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도입문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신행활동도 왕성하게 벌여왔습니다. 침체된 경전연구모임 및 참선법회를 활성화하여 회원 상호간에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고, 자비행 실천의 일환으로 불교계 복지시설인 자혜원을 매년 2차례 정기적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사찰순례도 봄, 가을 연 2회하고 있으며, 올 봄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동반 사찰순례를 떠나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였습니다. 이 때 경주남산연구소 김구석 소장 안내로

법주사 대전포교원 태전사 건립 불사

연구소 안전기술원 성불회 창립 산파역



한국원자력연구소 성불회원들이 울릉 경주 남산에서 열린 산행법회에서 신라불상과 탑들을 답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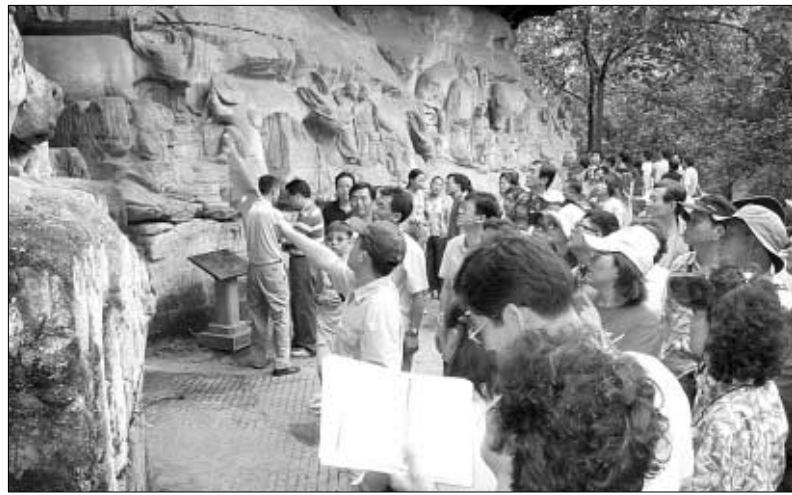
KT&G 중앙연구원'는 바로 우리 성불회가 주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성불회는 대덕연구단지 성불회 지회로서 연구단지 성불회 법회와 신행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독립적인 법회와 신행활동 및 사회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불회는 현 법주사 대전포교원 태전사 건립을 위한 발기대회와 불사를 벌였습니다. 또 97년 7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안전기술원이 독립하면서 기술원 성불회 창립을 이룩했습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2002년 10월에는 우리 성불회가 주관인 태전사 앞마당에서 '제2회 마음을 여

6시간에 걸친 경주 남산신행을 했고, 남산에 내려있는 신라 불상 및 탑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올 가을에도 불교문화 이해를 위하여 목조건물인 진전의 보탑사로 가족 사찰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 여파로 중단된 여름가족 산사순례에도 내년부터는 다시 열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올 하반기에는 여러 행사 가운데, 지난해 가을 성불회가 주관하여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마음을 여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우리들만의 성불회가 아닌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직장불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김영수 회장



공불련, 7박8일동안 중국불교 성지순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는 지난 8월 9일부터 16일까지 7박8일간 중국불교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50여명이 참가한 이번 순례는 중국 아미산 낙산대불, 와운암, 대적보장산 석가열반상, 중경, 삼현담, 상해 임시정부청사와 육불사 등을 탐방했다.

우리 모임에선



소보원 범우회 정기법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범우회(회장 노영화) · 사진: 16일 강남 구룡사에서 '직장불자의 수행방법'에 대해 주지 정우 스님에게 법문을 들었다.



직지사서 '법화경' 공부

경북 김천소년교도소 불심회(회장 김기화) · 사진: 8월 29일 김천 직지사 천불전에서 포교국장 덕영 스님에게 <법화경> 교리강좌를 들었다.



오세암서 3천배 철야정진

철도청 성북승무소 범우회(회장 박우락) · 사진: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설악산 오세암에서 3천배 철야정진법회를 열었다.



무각사에서 하계수련법회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 · 사진: 8월 31일 광주시 무각사 대웅전에서 주지 광민 스님에게 '재가불자의 수행법'에 대해 법문을 들었다.

전력인 불자 신행 달군다 108배 릴레이운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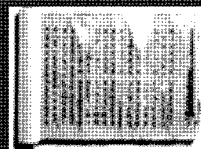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8배 릴레이 운동은 개인의 여건에 따라 정진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선택해 진행되며,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전국 17개 지회 700여 회원들이 동참해 오는 12월 2일에 회향한다.

특히 108배 릴레이 운동은 전력인의 직업적 특성을 살려 전력사업의 원만한 성취도 기원한다. 전불련은 이를 위해 최근 난항을 겪는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추진사업, 원자력 발전소 건립 등 회사가 안고 있는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발원하는 기도를 월1회 열 계획이다.

한국전력인불자연합회 이순형 사무국장은 "이 운동은 전력인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신행의 일상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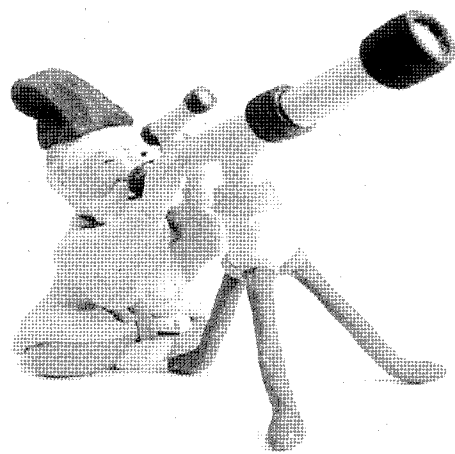
紫微斗數全書



천년 신수의 왕 자미두수!!

『천하제일의 신수(神數)! 자미두수!』
천년만에 공개되는 『자미두수』의 핵심비밀
그 유일무이한 교과서!

국내최초로 소개되는 『자미두수』의 가장 완전한 텍스트북! 자미두수를 학습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독해야 할 책! 정확한 원문수록과 번역!



원저자 진희이(陳希夷) 선생
역자 이두 김선호(金善浩)

사주추명학에서 느껴보지 못한 시원함!!

『자미두수전서』

13년 동안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만과 홍콩의 어떤 해설서도 따라오지 못하는 치밀한 해설과 역자주! 장장 7년의 세월동안 각고의 노력끝에 탄생한 이 책은 자미두수를 연구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스승이 될 것이다.

공자 맹자 손자 등 고대인은 물론 의사 장군 등 현대인까지 무려 121명을 예로 들어 풀이하였고, 특별부록 자미두수 CD를 활용하여 생년월일시를 입력하고 연습한다면, 누구나 3개월 안에 자미두수로 본 인생을 논할 수 있다.

추천의 글

- 자미두수라는 고전을 자신만이 알고 닦은 경험적 진실로 새롭게 재해석
김성기(성균관대학교 교수)
- 이 책을 일독(一讀)해 보면, 자미두수의 그 경이로운 적응결과 구체적 논리성에 대해 이해가 될 것
韓國紫微斗數學會長 碧張 張正林
- 중국어인 中國의 어느 해설서라도 능히 제압하는 역작이니 韓國 사계의 福音이다. 易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널리 권장하여 마지않는 바다.
에스컴퓨터닷컴 대표 李修

전 2권(상,하) 1,700쪽 100,000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특별부록 자미두수 CD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묘산 현영길 미두점 주역해 등이 곧 출간됩니다. 대유학보 9월호가 발간 되었습니다.